

신문은 사랑을 심고...



기억나십니까?
 할아버지의 돋보기 아래서
 피어오르던 신문 잉크의 향기,
 한글자 한글자에 스민
 세월의 이야기와 고향의 숨결을.
 40년 추억 담긴 《길림신문》은
 고향의 다정한 속삭임이 되어
 잊혀지지 않는 우리들의 정을
 이어주는 친근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뿌리내리신 부모님의 창가에,
 먼 타향의 당신 책상 위에
 한장의 그리움을 선물하세요.

아침해살에 접어드는
 《길림신문》과 함께
 먼곳에서 보내는 그리움의 안부를 전해주세요.

全年定价: 180元

扫描二维码关注
《吉林朝鲜文报》微信公众号



点击《服务》-《订阅报纸》
进入中国邮政-微商城
按照提示购买订阅

刊名: 吉林朝鲜文报
刊号: CN22-0030/-CH

邮发代号: 11-13
订阅地点: 当地邮政局

订阅咨询: 权勇
电话: 15304312665

未收到报纸或投递服务态度不好请拨打邮政投诉电话11185转人工台